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탐진치’도 애욕심에서 나왔다

업의 당처가 빈줄 알아야한다 ①

부처님의 그 모습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엔 중생들은 그렇게 안되는 게 전부 애욕의 덩어리라. 애욕도 천중만중이예요. 그 애욕이 있는데 탐진치까지 가해졌어. 그러니까 거기서 얼굴 빛깔이 자꾸 달라져요. 애욕만 있어도 거울에 모습이 나타나겠는데 탐이 가해진다든지 성내는 게 가해진다든지 가려움증이 가해지는 데 따라서, 미련하게도 되고 독하게도 되고 어떤 때 이쁘게도 되고 다 이래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는 건 이유가 있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쩌해야 되겠느냐.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애욕의 당처가, 우리는 모두 애욕의 덩어리라 합시다. 내나 여러분들이나. 애욕의 당처가 비었다는 걸 이견 과학적으로 그 자리 비었거든. 애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예요? 무슨 모습이 있어야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 그거 빈 거 아니냐? 아하, 애욕의 당처는 빈 거로구나. 공연히 비어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내 생각을 일으켜서 말이죠 삼독심, 탐진치를 일으키는구나. 내 생각을 안 일으키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내 생각을 일으키니 탐진치로구나. 공연히 없는데 내가 탐진치, 애욕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은 당장 이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욕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애욕덩어리는 탐진치, 사랑 분별 모든 것이 꼭 뭉쳐 있다 말이죠. 그러나 그걸 갖다 걸어서 잡아잡을 수가 없네. 그 어디 다른 데 있는 걸 내가 갖다 쓰는 거 아니거든. 내 생각을 일으켜서 성난 때 성을 내고 웃을 때 웃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다만 내 마음자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 따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빈 거 아니예요?

그러하니 그 자리가 빈 줄만 알면은 애욕의 덩어리는 어느 사이에 눈 녹듯이 없어 버리고 청정법신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두 말할 것 없이 허공으로서의 내라 할 땐 허공에 무슨 놈의 애욕이 있겠냐. 무슨 놈의 탐진치가 있겠냐. 다 여기 들어가

는 거라. 그러하니 우리가 어리석게 공연히 원래 없는데 한 생각을 톱 일으켰어. 일으켜서 막 부회(회)를 내고 성내고 뭐 하고 해 쌓는 거, 그거 전부 쓸데없는 짓거리 아니예요? 그것이 본래 있다면 써도 좋아.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본래 어디 있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탐진치가 어디 있나. 한 번 내 보세요. 못 찾습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애욕이 어디 있나? 애욕이란 말이 나타났지만 애욕의 덩어리인데, 우리 몸은 애욕의 덩어리라 하고 그 뿌리가 어디 있나? 없어요. 공연히 아무 것도 없는데, 텅 비어서 허공과 꼭 같은 내 몸인데 그만 내 스스로 이 생각도 일으켜, 저 생각도 일으켜, 그래서 애욕의 덩어리를 내가 만드는 거 아니

“

애욕의 당처 비어 있는데
생각 일으켜 탐진치 일으킨다
그 자리 비어 있는 줄 알면
애욕의 덩어리 눈 녹듯 사라져

”

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여러분은 생각할 때 부처님의 몸매와 같은 몸매를 가질라하면은 애욕의 당처가 비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애욕의 당처가 비었으니까 인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 안 하면 돼. 그 말이에요. 알겠지요?

순전히 탐진치든지 애욕이든지 사랑 분별이든지 뭐든지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지어낸 것이거든요. 지어 내는 거 안 지어내면 되지 안 해요? 그거 아니예요? 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도, 알아도 어떤 경계가 딱 딱 쳐 놓으면 그만 성을 낼 때 성을 내고 웃을 때 웃고 좋아 나쁘다 이래 싸니 그것이지, 그러나 저러나 성을 내도 성을 내는 그 앞 소식이 비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웃어. 웃는 그 앞 소식이 비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런 내가 한 여감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따져 들어가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이 만 년 염불한 거보다 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불이 어떻게 할것입니까. 염불했다 해서 복이 들어옵니까. 염불하는 순간에는 내가 잡념이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의 공덕이예요. 그러나 잡념이 없어진 줄 모르고 무엇을 구해서 염불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도깨비 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염불 잘하는 사람도 도깨비보다 나이래 합니다. 난 말합니다. 서울서, 부산 와서 그런 말 했어요. 어느 보살 참 염불 잘 한다. 도깨비로구나. 역시 눈이 좋지 못해. 참말로 잘 한다는 사람 눈이 푸르러 그런 기운이 있어. 모습들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울서 설법 때 그런 말 했어요.

그러하니 여러분이 허공으로서의 내다. 탐진치 애욕... 무엇이든지 그 당처가 전부 빈 거다. 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애욕심을 일으킨 거다. 탐진치를 일으킨 거다. 사실을 사실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없는 걸 우리가 억지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만 생각을 여러분들이 참말로 한번 그 생각을 가지면은 잠깐 사이에 그 생각을 가지면은 이십 년 삼십 년, 염불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리를 택해야 되지, 실다운 이익을 택해야 되지 왜 헛된 놀음을 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부탁한 것 꼭 그리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자주 마음과 타협을 하지 마라 눈과 타협을 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을 하지 마라 늘 그러죠.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이고. 실은 마음과 눈, 요즘 두 나가 들어서 사람을 우리 몸뚱이 병신 만들고 있습니다. 만났 눈과 타협하고 귀와 타협을 하고 코와 타협을 하고. 마 타협하는 뚱에 그래서 본래의 소식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이거 눈과 타협을 하고 귀와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은 이 망년, 망상, 이것이 실다운 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디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을 낸다든지 웃는다든지 그 뿌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만 어쩌다 경계에 닿았더니 내 마음에 좀 맞으면 웃고 내 마음에 틀리면 성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상 분별 사랑 번뇌, 삼독심도 여기서 나는 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서약회 · 보림선원

아미타불 보는 자리가 극락정도

14-2. 십념(十念)

최고로, 가장 높아야 그 앞에서 누구나 머리가 수그러지고 숭배를 한다. 최고로 높은 것이 있는데 다음의 제2나 제3을 보고 숭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셋째는 귀취지가 있다. 목숨을 돌이켜 여기 대해서 취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총망라해서 갖고 있고, 또 가장 높은 것이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진리가 다 여기에 돌아 목숨을 돌이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다 한데 곁해 있으며 종교라고 하는 '마루중' 자가 역시 이 셋을 포괄하는 점으로는 같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지성스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된다. 삼업(三業)을 맑혀, 체, 상, 용(體相用) 그러니까 그 자체나 양상이나 일체의 공용성(公用性)을 지다 버린 완전한 무아(無我)의 경지에 들어가 모든 속된 생활을 떠나고 이러한 절대적인 지경에서 나무아미타불 이라 염불하는 것이다.

여기 원효대사는 말씀하시기를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 물들거나 집착해 있는 염착심(染着心)을 모조로 여의어야 하고 이를 여인 지경(智境)이라 말로 곧, 만덕(萬德)을 갖춘 아미타불의 보신(報身)을 보는 자리라 하였다. 아미타불을 보는 자리가 곧, 극락 정도다. 우리는 이 극락정도에 생활을 영위한다. 이에 대해서 재미있지만 그러나 좀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운 철학이 있다.

셋째는 공상(空相)도 역공(亦空)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효대사의 말씀. '공상도 역공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서 공(空)이란 '이것이다' 하고 단정하는 그것을 말한다. '이것'이란 저속하고 현실적인 것을 일체 버린 것.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란 만민에게 통용되는 절대적인 평등성(平等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통용되는 평등성이 들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역시 공(空)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空空)도 역공(亦空)이라는 것이다. 그대로 풀이한다면, '공을 공이라 하는 것도 또한 공이다' 이런 말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만민에게 통용되는 평등한 자리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등한 자리가 또한 공이다 하는 것이다. 진리

를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 해해 놓는 것. 이를테면 진리란 광대무변한 것인데 이를 현실의 특수한 틀에 적용시켜, 이것은 이것이며, 이런 자리다 하는 것은 평등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일단 뛰쳐나와 현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을 설명하는데 '자리'라는 말을 썼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평등한 자리'도 역시 공이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현실 사회를 놓고,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존재론적(存在論的)인 단정이나 또는 옳다 정당하다고 하는 따위의 실천 모델의 테제가 보여 주는 차별상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어디까지나 옳다. 어떠한 이유로 하여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차별상을 이것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空空)도 또한 공(空)이다. 평등에서도 공은 공인 것이다. 여기서 공공(空空)이라는 것이 현실의 차별을 나타낸

다. 현실을 가져오거나 진리를 테마로 삼아 명제(命題)를 내놓거나, 실상인즉 이 둘이 다 하나의 것이며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서 역공(亦空), 또한 빈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거니와 현실과 진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뜻하여 또한 이라는 역이 처음부터 종론 따라다닌 것이다.

앞에서 '진리답게 하는 바'를 가려내었다라고 소공을 설명하였는데, '가려내었다'는 것은 앞의 두 테제를 통해 새로운 테마를 찾아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위의 둘과 셋째의 소공이란 것은 앞의 둘의 종합한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진리와 현실을 종합한 그것을 진리성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또한 공이라는 것이다. 진리와 현실이 둘 다 통틀어 하나를 본위(本位)로 삼고 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일제(一論)라, 또는 진리성 하나를 위한 것으로 일법계(一法界)라 이런 말을 한다.

“

만민에게 통용되는 평등성 '공'
평등한 자리 역시 '공'이다
진리는 속된 현실을 버리고
참된 것 가려낼 줄 알아야

”

말이다. 왜냐하면 공을 공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을 없도록 하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현실은 이를 부인하거나 무(無)로 돌릴 수는 없는 '존재(存在)'임에 틀림없다. 이는 차별의 분별이 되어진다. 즉 이것은 시유(是有)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다고 하는 단정화, 이것은 옳고 또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분별을 말하고 있다.

셋째는 소공(所空)도 역공(亦空)이다. '공한 바도 또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진리다운 바도 또한 공이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앞에서 진리는 공이다 하였었고 그 다음 현실도 공이다 하였는데 이번에 셋째번으로는 '진리다운게 하는 바'를 또 가려내었다. 이것은 셋째번과 둘째번 테제가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셋째번 테제다. 공한 바란 진리다운 것, 그러니까 진리성을 완전히 드러내어 설명하는 것

첫 번째 공상역공(空相亦空)에서는 현실을 버려야 된다. 진리는 속된 현실을 버린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현실의 각계에 걸쳐 집합된 양상에 지양해야 된다는 말이었다. 둘째의 공공역공(空空亦空)에서는 우리가 현실에 즉해 있기 때문에 이에 의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타상(依他相)이다. 현실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관을 세운다. 이런 말이다. 셋째 소공역공(所空亦空)은 이 현실을 또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원효대사 말씀으로는 속(俗)) 현실을 버려야 된다. 또는 현실에 즉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즉해야 된다. 현실 안에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버려야 된다. 즉해야 된다. 라는 것은 두 가지 말이다. 하나는 아니면서도 이 논리에서 일관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첫째번의 버려야 된다는 말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별을 말하고 있다. 둘째는 소공(所空)도 역공(亦空)이다. '공한 바도 또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진리다운 바도 또한 공이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앞에서 진리는 공이다 하였었고 그 다음 현실도 공이다 하였는데 이번에 셋째번으로는 '진리다운게 하는 바'를 또 가려내었다. 이것은 셋째번과 둘째번 테제가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셋째번 테제다. 공한 바란 진리다운 것, 그러니까 진리성을 완전히 드러내어 설명하는 것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회 채정복) 전 3권(인축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感 체험
	숨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공)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